

## 성인 초기 커플의 데이트폭력 유형에 따른 가해와 피해에 대한 관계 역동 연구\*


박 경 은<sup>†</sup>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커플의 데이트폭력 유형에 따른 관계 역동을 탐구해 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5쌍의 커플 인터뷰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3개의 영역과 13개의 상위 범주, 30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영역 1에서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 폭력 유형 및 경험수준'을 탐구하였고, 그 결과 가해와 피해의 역동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력 유형은 상황적 유형과 통제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영역 2에서 '주요 갈등 주제 및 고유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을 탐구하여 주요 갈등 주제로 '이성 및 연락문제'와 '간섭 및 성격 문제'를 도출하였고, 고유한 인식으로 '성별고정관념'과 '폭력허용신념'을,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에 '귀인 양식', '주요 감정'과 '대처방식'을 도출하였다. 영역 3에서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 요인'을 탐구하여 헌신의 변화와 만족감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관계유지 요인은 긍정 요인과 부정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커플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논의하였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커플, 폭력 유형, 관계 역동, 합의적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4568).

† 교신저자 : 박경은,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E-mail : p4a7r4k3@semyung.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3월 전북 군산에서 오랫동안 동거해 오던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한 남성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새전북신문, 2023. 04. 05). 2023년 5월 서울 금천구에서 한 남성은 동거인 여성이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분노하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는 범행 당일 집에서 나올 당시 무조건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뉴스1, 2023. 05. 26).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약 1만9천 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천 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고, 교제폭력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8,982명에서 2021년 10,554명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신고와 검거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잔혹한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이트폭력은 많은 나라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하 IPV)으로 규정하여 처벌법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늦게 데이트폭력 법안을 마련했는데, 실례로 중국은 2015년 가정폭력 방지법률 안에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폭력을 다룰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Su, 2017). 그러나, 한국은 가정폭력 방지법률안 안에 데이트 중인 관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에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증

가하고 있으나(홍세은, 한민경, 2021), 법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장미혜 등, 2021). 데이트폭력은 일시적 혹은 만성적 건강상의 문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Amar & Gennaro, 2005), 이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가져와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Munro & Sellbom, 2022).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데이트폭력 문제의 증가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의 기반을 위협하는 하나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신고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2023년 5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 신고 현황을 보면 여성이 60%, 남성이 18%로 여성이 3배 이상 높은 신고율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약 73%에 달했다(여성신문, 2023. 06. 30). 이로 인해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러한 기사 및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친밀한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주로 '가해는 남성, 피해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폭행 및 살인 등 심각한 수위의 폭력만을 폭력으로 인식하고, 남성의 폭력피해호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분법적인 인식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이 일어난 상황 맥락을 정확

히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남성 가해, 여성 피해’의 이분법적 인식은 오랫동안 확산되어 왔지만(Bell & Naugle, 2008; Dixon & Graham-Kevan, 2011; Hsieh et al., 2009; Shen, 2014), 가·피해에 따른 성별 차는 크지 않다는 연구 또한 있었다(Straus, 2004). 2004년 캐나다의 범죄 피해 조사결과에서 남성의 약 40%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부터 통제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LaRoche, 2008), 다소 경미한 수준의 폭력으로 인식되었던 통제적 행동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경험하며, 신체적 폭력 또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로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었다(Ministry of Justice, 2015). 다른 연구들(Archer, 2002; Kamimura et al., 2016; Melton & Belknap, 2003)에서도 여성이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행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시아 문화권의 중국 및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최근 가해가 여성에 의해 이뤄진다는 논의들(Anderson et al., 2011, Chen & Chan, 2019; Kamimura et al., 2016)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의 범주별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김래은 등, 2020)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폭력을 포함해 전체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옥형, 김춘경(2021)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하였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태경(2018)이 대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적 폭력을 제외한 다른 범주의 폭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또한 교제 중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하며, 데이트폭력이 양방향 폭력으로 이뤄진다는 관점(Straus, 2008, 2011)을 커플의 관점에서 탐구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상황 및 대상에 대한 판단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Hammock 등(201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피해를 여성은 가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일 때 가해자에 대한 부정인식이 강화되고 가해자가 남성일 때 성별과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부정인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는 데이트폭력의 여러 범주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남성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의 범주에는 정서적, 통제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이 포함되는데(Anderson & Danis, 2007; Murray & Graybeal, 2007; Spencer et al., 2022; Straus, 2004), 힘의 우위를 차지하는 남성의 수위 높은 범주의 신체적 폭력은 더욱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더 자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가 있고(Archer, 2000), 남성 또한 여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결과 아주 심각한 경우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0%에 달하기도 했기 때문에(Tjaden et al., 2000)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또한 통제적 행동과 수위 높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으

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례로 Archer(2006)가 52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나라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에서 폭력 피해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힘과 지위의 향상을 가져왔고(Tang & Lai, 2008), 여성 또한 남성처럼 상대를 향해 힘과 통제를 행사한다는 결과들이 있으므로(Giordno et al., 2016) 여성 또한 교제 관계 안에서 힘과 통제를 행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정신적 폭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은 비가시적 폭력 가운데서도 행동 통제(controlling behavior)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 제시하고 있다. 행동 통제는 교제 초기부터 교묘하게 시작되어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Minto et al., 2022), 연인 사이에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통제와 간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행동 통제가 있었던 경우 다른 유형의 폭력 또한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김진숙, 문화진, 2021; 허수진 등, 2019; Fawson, 2015), 이후 수위 높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Aizpurua et al., 2021) 이를 간과할 수 없다. 행동 통제는 한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주체적 선택과 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Stark, 2007), UN(2014)은 행동 통제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행동 통제 안에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간섭하고 제한하며,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 및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커플의 유형 분류(Typology)를 시도한 Johnson(1995, 2006)은 신체적 폭력과 행동 통제 여부에 따라 집단을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유형은 통제 중심의 폭력을 행사하는 그룹이고, 다른 유형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그룹이다. 통제적 유형은 상대의 행동 및 일상을 통제하며 자신의 요구대로 상대가 따라주기를 강요하면서 갈등과 폭력이 생기는 유형을 뜻하고, 상황적 유형은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갈등 상황 속에서 폭력이 촉발되는 유형을 뜻한다. Kelly와 Johnson(2008)의 연구에 의하면 상황적 맥락에 의해 폭력이 행사되는 커플 유형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유형은 힘과 통제를 목적으로 감정적 학대와 강요 및 협박,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Johnson(2006)은 양쪽 모두 통제적인 그룹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한쪽이 통제적인 그룹은 가해자가 주로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과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LaRoche(2008)이 실시한 범죄 피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제적 폭력으로 인한 남성 피해자는 약 40%에 달하였고, Ehrensaft 등(2004)의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의 통제적 폭력의 비율은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구마다 행동 통제를 하는 성별 차이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커플의 차원에서 양쪽 모두의 경험을 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이 통제를 시작하는 경우와 여성이 통제

를 시작하는 경우 각기 다른 역동을 보일 수 있다면 이를 드러내 볼 필요도 있다.

폭력 유형에 따라 폭력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행동 통제가 관여된 경우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Aizpurua et al., 2021)가 있고, 상황적 유형 또한 상당히 위협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Kelly & Johnson, 2008)가 서로가 상충하고 있어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제적 유형과 상황적 유형의 커플은 갈등이 고조될 때 이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를 탐구해 볼 필요도 있다. 통제적 유형의 커플은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관여될 수 있지만, 상황적 유형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갈등 및 의사소통 기술의 결핍 등 관계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게 관여할 수 있다(Stith et al., 2011). 두 사람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서로가 언어폭력을 행사하다 보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Johnson, 2006).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계의 맥락을 상황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 역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Giordano et al., 2020; Stith et al., 2011).

현재까지 국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커플 대상자를 찾고 커플 단위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커플이 아닌 한 개인을 대상으로 가해와 피해에 관여하는 요소들(박미소, 이지연, 2021; 서윤주 등, 2020; 안은별, 임수진, 2019; 이승우, 남재성, 2018; 홍영오, 2017)을 탐구한 것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의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홍영오, 2017), 성역할 태도(이미호, 2020) 및 관계 만족도(오선영, 김영희, 2007) 등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밖에 데이트폭력 주제와 관련된 주요한 국내 연구들을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트폭력 가해와 관련해 폭력 허용도는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는 폭력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최진 등, 2019),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윤진 등, 2012). 가해의 주요한 변인으로 폭력 허용도를 다루는 연구들(구혜영, 2017; 김수민, 이창배, 2021; 문지혜, 정혜정, 2015; 홍세은, 한민경, 2021)은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위가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폭력 허용도는 폭력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서경현, 2004), 폭력이 갈등 해결방식의 하나라고 여기는 경우(신혜섭, 양혜원, 2005) 높아질 수 있고,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김유정, 서경현, 2009; 유고은, 이창배, 2021; 홍세은, 정지수, 2019).

데이트폭력 피해와 관련된 요소를 탐구한 연구들은 어려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가정폭력의 직접적 경험이 있었던 경우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신소라, 김연수, 2016; 이지연, 오경자, 2007), 이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백옥현, 2010; 임채영 등, 2010). 또한, 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권혜림, 2021)에서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불안정한 성인애착, 낮은 자존감, 이타적 망상 및 긍정적 편향 등의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달리 말

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반복됨에도 그러한 관계에 애착을 느끼거나 떠나지 못하고(김광은, 이위갑, 2005), 자신이 폭력을 잘 견디어 내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경우(이정은, 2007)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커플 단위의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 유의미한 연구로 서경현과 안귀여루(2007)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공격적 피해 여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가능성을 드러내 준 연구들을 확장하여 여성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공격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격적 피해자는 순수하게 피해만 당하는 사람(victims only)이 아닌,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혹은 폭력 피해에 대한 반격, 또는 상대의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를 뜻한다. 위 연구에서 순수한 폭력 피해 여성과 공격적 폭력 피해 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격적 피해 여성은 과거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 연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경우도 있었으나 약한 정도의 신체적 가해를 당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경현(2008)의 공격적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탐구되었는데, 순수 피해 여성과 공격적 피해 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순수 피해 여성이 더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 피해 여성은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았고 분노통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진 가정폭력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높인다는 연구(윤진 등, 2012)가 있었던 반면,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남녀 비교한 연구(홍영오 등, 2015)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해당 요인을 더 높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가해와 피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염건웅 등, 2020) 성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현실에서 데이트폭력 상황이 덜 일어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주령, 박지선, 2019), 데이트폭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래은 등, 2020; 하예지, 서미경, 2014; 홍영오 등, 2015).

한편, 갈등 및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절하는 변인의 성별 차를 밝혀낸 Dutton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 가해자의 폭력 행동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으로 감정적 학대, 성적 학대를 하는 것, 약물사용,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주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기 남성의 알콜이나 약물사용, 구속될 수 있는 범죄 행위 등의 연관성은 Giordano 등(2020b)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Stith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가해자의 폭력 행동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으로 관계 만족도, 상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및 우울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 정서적 변인들이 주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데이트폭력 가해 범주별 차이, 인식의 차이, 폭력 행동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의 차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 개인을 대상으로 탐구한 결과이므로,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

는 커플을 대상으로 어떠한 범주의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갈등이 촉발되고 심화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볼 뿐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향후 데이트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이성 각자의 개인적 요인들 이외에도 교제 관계 안에서 행사되는 폭력의 배경에는 두 사람 사이 형성된 관계적 힘의 불균형, 지배와 질투가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O'Leary et al., 2007).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촉발되는 '질투'는 성인 초기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 더욱 상승하고(Halpern-Meeekin et al., 2013), 생애 초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느끼는 불안정과 질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Goodboy et al., 2017). 이는 양자 관계 역동에서 상대에 대한 불신과 통제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고, 과거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경우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게 될 확률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uffman-Parks et al., 2019). 폭력에 관여하는 관계적 요소로 많은 연구들은 지배와 질투 이외에도 커플의 분노조절 전략, 의사소통의 문제, 갈등, 관계 스트레스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Goussinsky et al., 2017; Kamimura et al., 2016; Lasley & Durtschi, 2017; Paat & Markham, 2016). 이들의 연구를 통해 보면, 친밀한 교제 관계에 관여하는 질투 및 신뢰의 문제, 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 및 분노를 제대로 다루어 가지 못할 때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연인 관계의 만족도와 서로에 대한 헌

신의 정도는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으므로(Slotter et al., 2012) 이러한 관계적 요소들이 남녀 사이의 어떠한 관계 역동을 촉발하여 데이트폭력을 이끄는지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커플 단위의 연구는 두 사람의 관계 및 심리적 요소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Dynamics)을 드러내 줄 수 있다. Rusbult와 Van Lange(2003)에 의하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관계 역동(relationship dynamic)은 두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 및 태도, 의사소통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특히 이러한 역동은 갈등이 되는 주제에 따라 서로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어 폭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utch(2007)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형성된 힘은 상황적 맥락, 즉 두 사람이 합의한 역할 등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러한 힘은 고정되거나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속한 더 큰 체계 속의 불균형 및 양자 관계 안에서 형성된 친밀감 및 대화 방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에 관여하여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주는 관계 역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커플의 관계 역동은 갈등 주제에 따라 남녀 각자의 생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 및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이성 교제에 대한 만족감, 상대에 대한 헌신 및 소통 방식 등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고 정의하겠다. 더불어,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한계 점검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은 어떠한가? 또한, 남녀에 따라 데이트폭력 유형과 범주,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심리적 요소들은 어떠한가? 또한, 남녀에 따라 가해와 피해 역동에 관여하는 주요 갈등의 주제와 신념, 폭력을 통해 촉발된 감정, 사고, 행동은 어떠한가?

셋째, 데이트폭력 경험은 커플 간의 헌신과 관계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남녀에 따라 폭력 경험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은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20대, 남성이 연상인 커플들이었다. 20대 연령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데이트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의 발생 시기는 20-25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O'Leary, 1999), 가장 최근 국내 경찰청(2020) 통계자료에 의하면 20대가 3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의 평균 연령은 23세였는데, 24세 이하는 8명, 25세 이상은 7명이었다. 여성의 평균 연령은 22세였고, 24세 이하는 12명, 25세 이상은 3명이었다. 직업으로는 남성의 경우 대학생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 2명, 재수생 1명, 배달업에 종사한 경우가 2명, 영업 관련 계통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1명, 무직인 경우가 2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대학생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 1

명, 대학 유학생이 1명, 취업준비 중인 경우가 1명, 간호사가 2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1명, 무직인 경우가 1명이었다. 교제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7개월로, 참여자들의 평균 교제 기간은 1년 7개월이었다. 현재 동거를 하는 연구 참여자는 총 다섯 커플로, 두 커플은 교제 후 각각 6개월 후, 1년 후 동거를 시작하였고, 다른 세 커플은 교제 이후 바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폭력 유형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척략척도 질문지를 전달하여 체크하도록 했고,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범주와 수준들을 확인하여 결과를 최종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 자신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체크하였다. 데이트폭력 커플 유형은 상황에 따라 갈등과 폭력이 야기되는 '상황적 유형'은 총 여섯 커플, 통제에 의해 갈등과 폭력이 야기되는 '통제적 유형'은 총 아홉 커플로 분류되었다. 상황적 유형의 커플은 사례 3, 5, 7, 8, 12, 14에 해당하며, 통제적 유형의 커플은 사례 1, 2, 4, 6, 9, 10, 11, 13, 15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데이트폭력의 범주와 수준 측정을 위한 보조 조사도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지만, 데이트폭력의 범주와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갈등척략척도를 보조 조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갈등척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II)는 Straus(1979)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김정란, 김경신(1999)은 국내 대학생들에게 맞게 번안하여 총 22개 문항을 Likert 척도 1점에서 5점으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번호	연령		직업		교제기간	폭력 유형 <sup>1)</sup> 커플 유형	폭력 유형 <sup>1)</sup>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1	21	20	배달업	-	1년	통제적	정,언,신,통	언,신,통	동거 중
2	21	21	재수생	대학생	2년 2개월	통제적	정,신,통	정,언,신,성,통	
3	20	20	-	아르바이트	6개월	상황적	정,언,신,통	정,신,통	
4	20	20	대학생	휴학생	1년 6개월	통제적	정,언,신,통	정,언,신,성,통	
5	25	25	배달업	간호사	3년 7개월	상황적	정,언,신	정,신	
6	20	20	-	대학생	1년 3개월	통제적	정,언,신,성,통	정,언,통	동거 중
7	25	25	대학생	간호사	3년	상황적	정,신,통	정,언,신,통	
8	23	21	대학생	대학생	8개월	상황적	정	정,통	동거 중
9	26	22	직장인	대학생	3개월	통제적	정,언,신,통	정,언,성,통	
10	26	23	대학생	대학생	1년 5개월	통제적	정,언,신,성,통	정,언,신,통	동거 중
11	21	21	대학생	취업준비	1년 5개월	통제적	정,언,신,성,통	정,언,성,통	
12	23	23	대학생	대학생	1년	상황적	정,통	정,성,통	
13	28	25	대학원생	대학원생	2년 6개월	통제적	정	정,신,성,통	
14	25	24	대학생	대학생	7개월	상황적	정,언,신,성	정,성,통	동거 중
15	26	24	대학원생	대학생	3년	통제적	정,언,통	정,성,통	

로 체크하도록 되어있고, 하위 요인으로는 심리적 폭력(11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성적 폭력(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통제적 폭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수정(2020)의 연구용역과제에서 소개된 통제적 폭력 11문항을 포함시켰다. 통제적 폭력 문항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폭력의 행위로 ‘핸드폰, 이메일, 블로그 등을 자주 점검했다.’, ‘옷차림을 제한했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 활동

을 못하게 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성인 초기 20대 연령으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연령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앞서 연구 참여자 소개에서와 같이 20대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10대 및 30-40대 혹은 성인 후기 데이트폭력의 양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

1) 폭력 유형의 남녀 분류에서 갈등척략척도에 체크한 범주의 정신적 폭력을 ‘정’, 언어적 폭력을 ‘언’, 신체적 폭력을 ‘신’, 성적 폭력을 ‘성’, 통제적 폭력을 ‘통’으로 축약하여 제시하였음.

성 커플은 본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는데 동성의 데이트폭력 양상은 이성의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데이트폭력 경험수준은 참여자 선정을 위한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갈등책략척도의 질문들을 활용하여 심리적, 통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 중 한 가지 범주 이상 5점 척도에서 2점 이상인 경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 지인의 블로그 및 구인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이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두 커플이었다. 지인을 통한 소개는 연구자가 과거 정책연구를 통해 알게 된 형사와 학생 연구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인들은 연구자와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고, 참여자들 또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으며, 동의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에 대한 편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러한 모집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커플은 총 16 커플이었는데, 에타를 통해 참여한 한 쌍의 커플은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다툼 및 갈등의 문제를 호소한 경우로 데이트폭력의 문제까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분석에 활용한 연구 참여자는 15쌍의 커플이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참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2022년 8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된 후 최소 2주일 안에 약속을 잡아 각각 개별 인터뷰와 커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였고, 해당 내용을 담은 설명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비밀보장의 원칙, 연구 철회 등의 참여자 권리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두 사람에게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갈등책략척도를 전달하여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이 체크한 폭력의 범주 및 수준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대부분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의 스터디카페 회의실(스터디룸)을 빌려 사용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모두 조용하고 편안했으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 쾌적한 환경이었다. 그 중 세 커플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 두 사람의 지역이 각자 멀고, 일정상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 온라인 줌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최소 60분에서 90분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한 커플당 전체 인터뷰 시간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시간 30분이었다. 먼저 인터뷰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순서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인터뷰가 종료된 이후에 커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1차로 실시된 인터뷰 자료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 30분 내외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박사학위를 갖춘 평정자 2인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고, 이를 감수자 1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였다. 먼저, 평정자 2인은 연구 질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제시한 갈등, 지배, 질투, 스트레스, 소통의 문제, 갈등조절 방식 등(Goussinsky et al., 2017; Kamimura et al., 2016; Lasley & Durtschi, 2017; Paat & Markham, 2016)을 비롯해 관계 만족도와 헌신 등 사랑의 요소들(Slotter et al., 2012)을 포함시켰다. 이후, 감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주제를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사랑에 대한 정의 등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한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 사랑을 구성하는 관계적 요소의 변화, 주요한 갈등 주제, 갈등 및 폭력에 대한 사고, 감정, 행동의 심리적 역동 등이 탐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연구자 1인이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질문 예시는 연구 문제에 맞추어 아래 표로 정리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예시 질문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확인하고, 갈등 및 폭력 상황에 대한 서로의 생각, 마음, 주요한 감정 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커플 인터뷰에서는 폭력의 범주와 수준에 대해 개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작용 방식에서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 등이 어떻게 교류되는지 살펴보고, 갈등 해결방식 또한 상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탐색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유형별 사례 예시에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녹음하여 2주 이내 모두 전사하였고, 사례 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커플 인터뷰 자료를 취합하였다.

### 분석 방법

#### 합의적 질적 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분석 방법이 갖는 모호함과 타당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Hill 등(1997)이 소개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갖는 본연의 장점을 지켜내면서 질적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객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심리 및 상담 영역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Hill et al., 2005). 합의적 질적 연구분석 방법은 연구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평정자와 감수자를 연구 자료 분석 및 도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연구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하여 중요한 자료가 누락될 위험을 감소시키고, 연구자들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표 2. 인터뷰 질문 문항 예시

역동의 방향, 폭력의 범주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척략척도 활용) 체크해 주신 ** 폭력이 무엇인가요?</li> <li>· 체크해 주신 **폭력의 수준에 대해 궁금합니다.</li> <li>· 자신이 경험한 가해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ul>
주요 갈등 주제, 신념 등 내적 요인, 폭력에 대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갈등 및 폭력이 있었던 때가 궁금합니다.</li> <li>· 그때의 주요한 감정, 생각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주로 행동하셨나요?</li> <li>· ‘남자라면..’, ‘여자라면..’ 등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실까요?</li> <li>· (갈등척략척도) 이때의 일과 주요 감정, 생각이 궁금합니다.</li> <li>·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li> <li>· 갈등 및 폭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헌신, 만족감 변화, 관계 유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제하면서 관계 만족감, 헌신 등은 어떻게 변화해 갔나요?</li> <li>· 갈등과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li> </ul>

논의되고 합의된 연구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i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먼저 본 연구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커플의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을 탐색해 보기 위하여 개별 인터뷰뿐 아니라 커플 인터뷰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분석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자는 두 사람 모두를 인터뷰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커플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다각적으로 탐구한 자료들을 편향적으로 분석하게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분석에 참여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은 연구자의 편향된 인식이나 경험한 현상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ill et al., 1997). 또한, 합의적 질적 연구분석 방법은 양적·실험적 방법론의 결과를 접목한 형식으로 결과를 나타냄으로 질적 연구분석 결과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연구팀

본 연구의 평정자로 참여한 연구자들은 총 4명으로 3명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고, 1명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었다. 각 연구자들은 위계 및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아 서로의 견해를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평정자 3인은 상담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공인된 학회 1급 자격과 다년간의 풍부한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평정자는 심리학 박사과정으로 공인된 학회 자격 2급 이상의 전문

성을 갖춘 연구원이다. 감수자는 심리학 및 상담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갖춘 교수급 2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분석 방법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다. 평정팀에서는 먼저 해당 주제 분석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자신의 선지식과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영역개발

CQR의 자료분석은 영역개발,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 감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에 앞서 평정팀에서는 먼저 한 커플당 진행된 세 번의 인터뷰 전사 자료를 개별 인터뷰와 커플 인터뷰로 나누어 사례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런 다음, 전체 16사례를 4명의 평정자가 4사례씩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박사학위 2인의 평정자가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하여 분석결과에서 놓치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영역개발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면담에서 활용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스타트리스트를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면담 자료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며 새롭게 발견된 영역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영역과 범주 구성을 위한 논의에서 본 주제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커플 한 사례를 제외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 영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데이트폭력이 아닌 이성 교제 주제를 보여주는 단순 영역들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수정과정을 거친 후, 본 연

구자는 15커플의 45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영역목록을 작성하였고, 연구팀의 동의를 얻어 총 3개의 영역을 개발하였다.

### 핵심개념 구성

핵심개념 구성을 위하여 평정자들은 사례 속 참여자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며 원자료를 간결한 용어로 축약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견해나 관점이 관여되지 않도록 최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사실적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사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중심개념을 요약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서 핵심개념들을 묶어 범주화를 하고, 각 범주들이 배치된 영역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평정자들이 도출한 각 사례에 해당하는 중심개념 및 범주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갈등 및 폭력에 대한 주요 감정을 동적 정서와 정적 정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관계유지 요인 또한 긍정요인 및 부정요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성 교제를 비롯해 폭력과 관련된 신념 및 유형 범주화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하여 총 30개의 하위범주와 13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교차분석

교차분석에서 사례들 간의 유사한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각 사례에 해당하는 빈도(frequency)를 표시한다(Hill et al., 2005). 하위범주들이 몇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90%이상일 경우 일반적(general)으로, 50-90%일 경우 전형적(typical)으

로, 10-50%일 경우 변동적(Variant)으로, 10%이하일 경우 드문(rare)으로 표시한다. 또한, 한 사례일 경우에는 주요자료라고 볼 수 없어 제거를 한다. 본 연구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사례들 간의 패턴을 살펴보고, 유사성을 점검하여 각 영역 및 범주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였다. 빈도 설정 과정에서 Hill et al.(2005)의 기준에 따라 거의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적 빈도로,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형적 빈도로,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동적 빈도로, 1-2 사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드문 빈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전체 15사례를 통제적 유형 9사례와 상황적 유형 6사례로 나누어 빈도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통제적 유형은 총 9사례이므로 이를 100% 기준으로 삼아 하나의 범주가 5사례에 해당하면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전형적 빈도로 제시하였다.

### 자문

본 연구에서는 평정팀의 합의 과정 중 이견이 있었던 경우 감수자의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먼저 한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의 신념과 데이트폭력 커플 유형 분류에 대한 평정자들의 이견이 있어 1차 내부 감수 과정을 통해 다시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신념과 관련해 초기 분석과정에서 ‘이성 교제’와 관련된 신념이 도출됐는데, 연구 결과에 이를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감수자의 점검을 통해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 신념으로 ‘선별교정관념’과 ‘폭력 허용신념’만을 포함시킬 것을 피드백 받았고, 다시 평정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감수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데이트폭력 커플 유형은 초기 사티어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유

형화할 것인지, 갈등 해결방식 및 관계 중요도에 대한 차이에 기반하여 유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또한 감수자의 점검을 통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통제와 지배의 목적이 관여하는지 유무에 따라 커플 유형이 분류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유형을 확정하였다. 1차적으로 확정된 연구 결과는 편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감수자 2인에게 요청하였고, 해당 영역과 범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형화된 사례 번호의 적합성 및 영역별 코딩하여 제시한 범주를 재명명하고 CQR 분석결과에 부합한 결과로 제시할 것을 피드백 받았다. 또한, 최초 결과로 제시하였던 유형별 분류 및 남녀 차이에 대한 제시들이 연구분석 방법 결과에 부합하지에 대한 점검을 피드백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 결과를 재배치하고 각 영역 및 범주에 부합한 사례를 재검토하여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총 3개의 영역과 13개의 상위 범주, 3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1의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 유형 및 경험수준'에서 역동의 방향은 '양방향 폭력'으로 나타났고, 유형에서 상위 범주로 '상황적 유형'과 '통제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영역 2의 '주요 갈등 주제 및 고유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에서 주요 갈등 주제는 상위 범주로 '이성 및 연락문제'와 '간섭 및 성격 문제'가 도출되었다. 고유한 인식의 상위 범주로 '성별고정관념'과 '폭력허용신념'이, 폭

력에 대한 심리 역동에는 상위 범주로 '귀인양식', '주요 감정', '대처방식'이 도출되었다. 영역 3의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 요인'에는 상위 범주로 '헌신의 변화', '만족감의 변화', '관계유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상위 범주에 포함된 하위범주를 아래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빈도에서는 Hill et al(2005)의 제안에 따라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드문의 빈도로 나타냈으며 사례가 아예 없거나, 1개의 사례일 때는 탈락을 시켜 -로 표기하였다.

### 영역 1. 가해와 피해가 이루어지는 역동의 방향, 유형 및 경험수준

영역 1에서 커플 간에 가해와 피해가 이루어지는 역동은 모든 사례가 양방향인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의 유형으로 통제적 유형과 상황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통제적 유형은 커플 중 누군가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시도하여 관계 역동이 촉발되는 유형이고, 상황적 유형은 갈등이 되는 주제에 따라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어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유형이다. 본 연구 결과 커플 유형 분류에서 통제적 유형의 커플은 총 9커플로 전형적 빈도를 나타냈다. '통제적 유형'의 하위범주로는 '여성지배 여성우세', '여성지배 남성우세', '남성지배 남성우세' 유형이 도출되었고, '상황적 유형'의 하위범주로는 '한쪽 우세', '관계 중립' 유형이 도출되었다. 아래 표에 데이트폭력 수준이 2.5점 이상(5.0점 만점)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 범주는 볼드처리하였고, 범주 하단에는 해당하는 사례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3.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 유형 및 경험수준 결과

영역	범주	빈도					
		전체					
역동의 방향, 유형 및 경험수준	양방향 폭력 (1,2,3,4,5,6,7,8,9,10,11,12,13,14,15)	일반적(15)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전체	데이트폭력 경험수준			
				유형별	남성	여성	
		여성지배 여성우세 (1,2)	드문(2)		정신 4.5 통제 3.0 언어 2.5 신체 3.0 성적 0.0	정신 2.0 통제 2.5 언어 2.0 신체 2.0 성적 0.5	
		통제적 유형 (1,2,4,6,9,10,11,13,15)	여성지배 남성우세 (4,6,10,11)	전형적(9) 변동적(4)	2.1	정신 4.0 통제 3.8 언어 2.5 신체 3.3 성적 2.3	정신 3.3 통제 2.5 언어 2.0 신체 0.5 성적 1.5
		남성지배 남성우세 (9,13,15)	변동적(3)		정신 3.0 통제 1.0 언어 1.0 신체 0.0 성적 0.0	정신 2.5 통제 3.5 언어 0.0 신체 0.5 성적 2.0	
		합산			합산 2.6	합산 1.8	
		상황적 유형 (3,5,7,8,12,14)	한쪽 우세 (5,7,8,14)	전형적(4) 변동적(6)	1.3	정신 2.9 통제 0.5 언어 1.0 신체 1.5 성적 0.4	정신 3.2 통제 1.5 언어 0.5 신체 0.7 성적 0.7
		관계 중립 (3,12)	변동적(2)		정신 2.0 통제 1.5 언어 2.0 신체 1.0 성적 0.0	정신 2.5 통제 2.0 언어 0.0 신체 0.5 성적 1.5	
		합산			합산 1.3	합산 1.3	

**역동의 방향**  
본 연구에 참여한 커플은 모두 양방향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것과 같이 데이트폭력이 ‘양방향’ 폭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Straus, 2008, 2011)와 일맥상통한다. 데이트폭력의 범주는

각기 달랐으나, 참여자들은 모두 정신적, 통제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뷰 시작 전 체크한 갈등전략척도를 통해 확인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한 가·피해 경험을 종합한 결과이다. 아래 예시는 남성이 정신적, 언어적, 통제적 폭력을 상당히 높게 행사하고 여성이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폭력을 높게 행사한 '남성지배 여성우세' 유형의 사례9)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남성은 여성의 정신적, 언어적 폭력에 폭발하여 자해를 하며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성은 남성의 통제적 폭력에 대항하여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보여준다.

남: 저는 솔직히 좀 흥분을 주체를 못하거든요. 한번 흥분하면 이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손으로 뭘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 (축약) 저는 여자친구 표정 같은 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화만 터져가지고. 표정은 신경 안 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발, 개소리 이런 진짜 사람을 툭툭 건드리는 말이 저를 조금 화나게 만들고, 이제 여자친구가 저를 때릴 때도 있긴 있어요. 가슴 같은데 때린다고 아니면 싸대기를 때린다고. (축약) 제가 좋게 말했을 때 시발, 개소리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그때 폭발하는 거고..

여: 그냥 친구들 아는 사람 남자들한테 전화나 문자 오면 너무 질투가 많아요. 남자친구가. 누가 연락 오거나 연락하면 개 남자를 찾아서 죽인다고 막 이

리고.. (축약) 저는 화나면 술 먹어요.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한 것 보다 더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지금 이런다 저런다 하고.. (축약) 우리 둘다 그런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오빠도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나도 나를 다치게 해요. 부수거나 아니면 좀 그런게 있어요.

###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경험수준

**통제적 유형.** 통제적 유형은 한 상대가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관계 갈등이 시작된다. 이 유형은 상황적 유형에서와 같이 이성과 연락의 문제라 할지라도 한 상대가 다른 상대에게 자신의 바람을 들어줄 때까지 강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하위범주의 유형에서 커플들은 정신적, 통제적, 신체적 폭력을 비교적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폭력에는 '연인이 핸드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것',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다른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것',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하는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되고, 신체적 폭력에는 '밀치기', '꼬집기', '뺨 때리기', '때리기' 등이 포함된다.

하위범주의 '여성지배 여성우세' 유형의 예로 아래 사례1)에서 여성은 먼저 남성의 행동에서 탐탁지 않은 것이 생기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싸움을 시작한다. 화가 풀리지 않으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남성은 처음에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과를 하지만, 여성은 침묵을 하거나 화를 내며 남성의 화해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남성은 억압하고 있던 화가 폭발하여 문



을 세계 닫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만 결국 여성에게 또 다시 사과를 하며 관계를 회복한다.

여1: 저는 항상 말했어요. 참지 말고 불만 있으면 항상 얘기해라.

남1: 원래 참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을 하든 \*\*이가 잘못을 하든 제가 꼬리를 내리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불만을 얘기를 하면 \*\*이는 거기서 더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꼬리를 내리고..

‘여성지배 남성우세’ 유형의 예로 아래 사례 11에서 여성은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폭력을 높게 행사하고 성적 폭력은 중간 수준으로 행사하며, 남성은 정신적, 성적 폭력을 높게, 언어적, 통제적 폭력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행사하였다. 이 사례의 커플은 여성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남성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남성은 불합리한 잔소리로 규정하여 여성을 비난한다. 이에 여성은 서운함을 느껴 화를 내고 거친 욕을 하며 인격 모독 등의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에 남성은 감정을 억압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이별을 통보하는 등 회피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이에 여성은 이별을 원치 않아 사과를 하며 화해하는 패턴을 보인다.

남1: 외적인 옷을 계속 바꿔라 그러는데 저는 굳이 제가 잘 때 입을 옷을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나 싶은 거죠. 그런거 말고도 뭔가 외적인 부분 다른 것 같은 것도 다 바꿔라 바꿔라 하는게 좀 많았어요. (축약)

여1: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를 지금 400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해서 바뀌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성지배 남성우세’ 유형의 예로 아래 사례 9에서 남성은 정신적, 언어적, 통제적 폭력을 상당히 높게 행사하고 여성은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통제적 폭력을 높게 행사하였다. 이 커플의 갈등 주제는 주로 ‘이성(사람)친구문제’였다. 남성은 여성에게 다른 이성과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교제 초반 남성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았고 이에 서로 언어적, 통제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남성이 스스로 벽을 치며 손에 피를 내는 등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여성이 남성의 통제적 요구에 순응하는 패턴을 보였다.

남1: (인터뷰이: 두 분이 좀 격하게 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이렇게 칼로 막 좀 격하게 자해를 하고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말리기 바빴던 것 같아요. 미안하고.. (축약)

여1: (인터뷰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SNS상의 이성 친구를 다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걸 따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옛날 같이 싸우고 그게 더 심해지죠.

**상황적 유형.** 상황적 유형은 이성 및 연락 문제를 비롯하여 소통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되어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해 데이트 폭력이 행사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상황적 유형에 해당하는 커플들은 주로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연인이 못마땅한 표정은 짓는 것’,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 ‘고함을 치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 ‘침묵으로 저항하는 것’,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는 것’, ‘악의의 찬 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점 이상의 수준을 선별하여 제시해 보면 한쪽이 관계에서 우세한 경우 남성은 2.9점, 여성은 3.2점을, 관계 중립의 경우 정신적 폭력의 경험수준은 여성이 2.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의 ‘한쪽 우세’ 유형은 갈등이 되는 주제로 한 상대가 침묵, 비난 등을 하며 화를 내면 다른 상대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회유를 하거나 사과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 상대는 계속 더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상대의 화가 촉발되어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다른 상대가 사과하며 감정이 누그러져 화해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나의 예로 사례5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중간 수준의 정신적, 통제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남성은 약한 수준의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아래 사례는 커플 인터뷰 당시 여성이 남성을 약 올리며 자극해도 남성이 화를 내지 않자 그러한 모습을 비난하고, 남성은 여성의 비난을 수긍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여1: 부딪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참기만 하니까.

이게 끌어 내보고 싶더라고요. (축약) 제가 약을 올려요. 약 올려서 화를 내면 지는 이제 안 그러려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아요. (턱을 올려 눈을 아래로 깔고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야비한 놈 맞네.

남1: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관계 중립’ 유형의 한 예로 사례3에서 여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적, 통제적 폭력은 중간 수준 이하로 행사하며, 남성은 정신적, 통제적, 신체적 폭력을 중간 이하 수준으로 행사하였다. 이 커플의 한 가지 갈등 주제는 남성이 아르바이트 한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은 남성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 걱정이 되었고 이야기하던 중 상대를 비난하는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삼게 되었다. 이에 남성은 여성의 표현 방식에 격분하여 똑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식의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여성이 더욱 세게 언어폭력을 하다가 남성이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말들을 하며 상황이 종료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주로 서로의 표현 방식에 격분하여 감정이 고조되는데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시도하며 주요한 갈등 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과 폭력이 중단되는 패턴을 보인다.

여1: 저는 어차피 20년을 화를 낼 때 이렇게 주체가 안 되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고

칠라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화가 날 때 욕을 미친듯이 할 때 네가 ‘그만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닌 \*\*야 너 마음 이해하겠다. (축약) 나는 내 마음 알아달라고 화를 내는 건데 그 와중에 저를 더 지적하니까.

남1: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왔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2: (말을 자르며) 그래서 내가 내버려두잖아.

남2: 아 알았다고..

## 영역 2. 주요 갈등 주제 및 고유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

영역 2에서 주요 갈등 주제로 ‘이성 및 연락문제’, ‘간섭 및 성격 문제’가 도출되었다. 상위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범주 안에는 유형별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두 유형을 막론하고 하위범주의 ‘이성 문제’는 일반적인 빈도로 나타났고, ‘연락 및 소통의 문제’ 또한 상황적 유형에서는 전형적으로, 통제적 유형에서는 일반적 빈도로 나타나 적지 않은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하위범주의 ‘상대 연인에 대한 통제 및 간섭의 문제’는 통제적 유형에서 ‘전형적’으로, ‘성격 및 예민함의 문제’ 또한 통제적 유형에서 ‘일반적’ 빈도로 나타나 통제적 유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주제가 더 많고 전형적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유한 인식은 참여자들이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촉발된 인식이 아닌, 오래전부터 성별 또는 교제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인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별고정관념’은 통제적 유형의 경우 상황적 유형과 달리 변동적 빈도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폭력허용신념’은 유형을 불문하고 전형적 빈도 이상으로 나타나 자신 및 상대의 폭력을 보다 허용적으로 인식하여 갈등 및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허용신념은 연애하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써야 해결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을 비롯해 좋아하면 폭력 정도는 참거나 맞춰줘야 한다는 것,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등의 인식을 포괄한다.

폭력에 대한 심리적 역동은 이성 교제 안에서 촉발된 갈등 및 폭력에 의해 야기된 생각, 감정, 행동의 심리적 반응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심리적 역동으로 ‘귀인 양식’, ‘주요 감정’, ‘대처방식’을 도출하였다. 먼저 귀인 양식에서 상황적 유형은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내적 귀인 혹은 외적 귀인 하는 양식이 전형적 빈도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통제적 유형은 외적 귀인의 양식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에서는 통제적 유형의 경우 남성은 주로 외적 귀인을, 여성은 내&외적 귀인을 모두 변동적 빈도로 나타냈다.

주요 감정은 상황적 유형의 경우 ‘화/짜증’, ‘이해 불가, 답답, 싫음’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고, 통제적 유형의 경우 ‘화/짜증’, ‘불안/두려움’, ‘이해 불가, 답답, 싫음’이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으며, ‘서러움/슬픔’의 정도는 변동적 빈도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의 경우 여성은 주로 ‘화/짜증’을, 남성은 주로 ‘이해 불가, 답답, 싫음’을 일반적 빈도로 나타냈다. 반면, 통제적 유형의 경우 남성은 ‘화/짜증’을 전형적 빈도로 나타냈고 여성은

표 4. 주요 갈등 주제 및 고유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 결과

영역	상위 범주	하위범주	빈도			
			상황적 유형		통제적 유형	
			남	여	남	여
주요 갈등 주제	이성 및 연락문제	여자사람친구(여사친), 남자사람친구(남사친)의 이성 문제	일반적(6)		일반적(9)	
			일반적(6)	일반적(6)	일반적(9)	일반적(9)
		자신의 바람대로 연락 및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전형적(3)		일반적(9)	
	간섭 및 성격 문제	상대 연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통제하고 간섭하는 문제	드문(2)		전형적(7)	
			-	드문(2)	변동적(3)	전형적(6)
		성격 및 예민함의 문제	-		일반적(9)	
고유한 인식	성별 고정관념	남자는 힘이 썩어야 하고, 기 죽으면 안되며 여자 위에 있어야 한다.	드문(2)		전형적(5)	
			드문(2)	-	변동적(3)	드문(2)
	폭력 허용신념	여자는 여성스럽고, 예쁘고, 차분해야 한다.	-		변동적(4)	
			-	-	드문(2)	드문(2)
		연애하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써야 해결이 되기도 하며 좋아하면 맞춰주거나 참아야 한다.	일반적(5)		전형적(6)	
			전형적(5)		-	
폭력에 대한 심리역동	주요 감정	쌍방의 문제 또는 상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전형적(3)		드문(2)	
			드문(2)	드문(2)	드문(2)	드문(2)
		문제를 만든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전형적(3)		변동적(3)	
			드문(2)	변동적(3)	드문(2)	변동적(4)
		연인의 화를 이해하기 힘들고, 연인에게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함	일반적(5)		일반적(9)	
			변동적(3)	드문(2)	변동적(4)	전형적(5)
	대처방식	화/짜증이 나고 억울함	일반적(6)		전형적(9)	
			드문(2)	일반적(5)	전형적(5)	변동적(4)
		서운함과 서러움 및 상처와 슬픔	-		변동적(4)	
			-		-	
		불안하며 무서움	-		전형적(6)	
			-		드문(2)	변동적(4)
대처방식	이해가 안되고 답답하며 지치고 싫음	일반적(5)		전형적(6)		
		일반적(5)		드문(5)	드문(3)	
	감정을 억압하며 참거나 눈치보고 회피하기	일반적(5)		전형적(6)		
		드문(2)	전형적(3)	드문(3)	드문(3)	
	잘못이 없어도 끝까지 달래주며, 용서 구하기	전형적(3)		전형적(6)		
		전형적(3)		-		
상대를 설득하고 회유하며 끝까지 대화 시도하기	일반적(5)		전형적(6)			
	드문(2)	전형적(3)	드문(3)	드문(3)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폭발하기	드문(2)		일반적(8)			
	-		드문(2)	드문(4)		
				전형적(6)		

변동적 빈도이지만 대부분의 감정을 다양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은 상황적 유형의 경우 '회피와 회유'의 방식을 일반적으로, 통제적 유형의 경우 '폭발'의 방식을 일반적으로 나타냈다. 성별의 차이로는 상황적 유형의 경우 남성은 '달래주기'의 방식을, 여성의 경우 '회피하기'와 '회유하기'를 전형적 빈도로 나타냈다. 통제적 유형은 남녀 모두 대부분 드문 빈도로 대처방식을 활용했으나 여성의 경우 '폭발하기'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4와 같고, 참여자 진술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갈등 주제

**이성 및 연락문제.** 이성 및 연락문제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계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거나 연락이 자신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는 갈등 주제를 나타내 준 것이다. 특히 '남사친(남자사람친구)', '여사친(여자사람친구)'을 대표하는 이성 문제는 유형을 막론하고 참여 커플들의 전형적인 갈등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한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거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서로의 주변 이성 친구들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SNS의 발달로 서로의 위치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연락의 빈도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문제는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락문제는 상황적 유형에서 전형적으로, 통제적 유형에서는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차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통제적 유형의 사례4에 해당하는 여성이 자신의 바람대로 연락 및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애랑 저랑 켈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서 서로 이제 켈리를 끊어놨어요. (축약) 한번은 제가 되게 오래 잤어요. 그때 근데 눈 떠보니까 핸드폰 전화가 몇십 통 와 있고 계속 와 있고 그리고 막 페메를 보니까 애가 화나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나 그러면서 내가 뭐 병신으로 보이냐 막 이러면서 계속 온 거예요.

**간섭 및 성격 문제.** 간섭 및 성격의 문제는 참여자들이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통제와 간섭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의 주제를 막론하고 그것을 다뤄 나가는 상대의 성격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것은 유형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통제적 유형에서 '연락 및 소통의 문제'는 전형적 빈도로, '성격 및 예민함의 문제'는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로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해당 문제를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통제적 유형의 여성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일상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외모 및 태도 등의 변화를 요구하며 간섭하는 경우가 남성 참여자들에 비해 많았다. 통제적 유형의 사례11에 해당하는 남성이 연인의 통제와 간섭의 문제를 언급한 예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친구를 위해서 바꾼건데 뭔가 또 갑자기 전자담배 같은 것도 다 하지 말라 그러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섭이 심해지는구나 싶죠. (축약) 내가 군대 옷을 입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그 군대 옷 보는 게 싫으면은 그냥 영상 통화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전화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영상 통화를 해야 되나..

### 고유한 인식

**성별고정관념.** 성별고정관념은 참여자들이 성별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나타내 준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황적 유형의 경우 드물게, 통제적 유형의 경우 전형적 빈도로 해당 관념을 나타냈다. 상황적 유형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 참여자에게서 드문 빈도로 나타났고, 여성은 단 한 명도 성별고정관념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유형은 상황적 유형에 비해 해당 관념을 더 나타냈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이 변동적 빈도로, 여성은 드문 빈도로 나타났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 드문 빈도를 나타냈다. 아래 제시한 사례9의 남성은 ‘남자는 힘이 썩어야 하고, 기가 죽으면 안되며 여자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성격이 살짝 가부장적인 이유도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축약) 여자가 할 수 있는 집안일, 살짝 그런 것도 그렇고 남자한테 좀 잡혀 살아야 된다 살짝 이런 게 조금은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폭력허용신념.** 폭력허용신념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 모두를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은 일반적 빈도를 나타냈고, 통제적

유형은 전형적 빈도를 나타냈지만 그 차이가 한 사례로 크지 않았다. 성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의 여성은 단 한 명에도 해당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고 통제적 유형에서는 단 두 명의 여성 참여자만이 해당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전형적 빈도로 폭력허용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예로 아래 제시한 사례3의 남성은 ‘연애하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써야 해결이 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싸워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좀 심하게? 안 좋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

**귀인 양식.** 귀인 양식은 촉발된 갈등 및 폭력에 대하여 사고하는 방식을 나타내 준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쌍방의 문제 및 상황의 문제로 여기기도 했고,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자신의 과실을 뒤돌아보며 문제를 내적 귀인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외적 귀인을 하기도 했다. 아래 예시 사례는 통제적 유형의 사례11 여성이 자신들의 문제를 외적 귀인하고 싶지만,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문제의 원인을 쌍방의 문제로 귀인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저도 잘못하고 개도 잘못했지만 책임 전가는 개한테 다 하고 싶지만 양심상 저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50대 50?

유형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은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내적 귀인이 전형적 빈도로, 외적 귀인은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고, 통제적 유형은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가 드문 빈도로, 내적 귀인은 변동적 빈도로, 외적 귀인은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통제적 유형에서 남성은 외적 귀인을 변동적으로, 여성은 내적과 외적 귀인을 각각 변동적, 전형적 빈도로 나타냈다. 아래 예시 사례는 상황적 유형의 사례3 남성이 연인의 화를 이해하기 힘들고 연인에게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선생님 혹시 애랑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해 보시면 아실텐데 애가 다른 여자애들이랑 좀 달라요. 평범한 애들이랑은 좀 달라요. 성격도 좀 압도적이에요. 이게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주요 감정.** 주요 감정으로 '화/짜증', '억울함', '서운함', '서러움', '불안', '두려움', '이해불가', '답답함', '싫음' 등이 도출되었다. 유형을 막론하고 화/짜증은 전형적 이상의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적 유형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 싫음'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고, 통제적 유형은 '불안, 무서움, 답답, 싫음' 등의 다양한 정서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아래 사례 예시는 통제적 유형의 사례1 여성이 상처받은 것에 격분하여 짜증과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던 것을 나타내 준 것이다.

막 처음에 엄청 소리 크게 지르면서 짜증이 나요. 근데 아무리 개가 사과를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축약) 상처받거든요. 원래 안 그랬던 애가 갑자기 막 대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에서는 여성의 경우 주로 '화/짜증'을, 남성의 경우 '이해불가', '답답함', '지침', '싫음'을 일반적 빈도로 느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제적 유형에서 남성의 경우 전형적으로 '화/짜증'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대부분의 정서가 변동적 빈도를 나타냈지만,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통제적 유형의 커플들은 상황적 유형의 커플들과 달리 화가 나면서도 슬프고, 좋아하면서도 죽이고 싶은 양가적인 정서를 느끼는 특징이 있었다. 아래 사례 예시는 통제적 유형의 사례6 여성이 연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노의 감정이 남아 살해의 충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싸우고 나서 제가 뒤돌아서 제가 진심으로 애를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그냥 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재를 안 죽이면 진짜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처방식.** 대처방식은 참여자들이 갈등 및 폭력에 대응한 행동 양식을 나타내 준 것이다. 참여자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등 및 폭력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으로 크게 4가지가 도출되었다. 먼저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적 유형의 사례12 여성은 “왜 나는 난데 표현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압하고 참거나 눈치 보며 회피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고 하였다. 상대를 설득하며 회유하고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는 방식을 활용한 상황적 유형의 사례14 여성은 “우리한테 안 맞으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아니면 그 중에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한번 계속 생활을 해 보는게 어때..”라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였다.

유형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은 ‘회피하기’와 ‘회유하기’가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고, 통제적 유형은 ‘폭발하기’가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으며 다른 방식들도 전형적 빈도를 나타냈다. 남녀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에서 남성의 경우 용서를 구하는 방식을, 여성의 경우 회피와 회유의 방식을 전형적으로 활용하였다. 상황적 유형의 사례5 남성은 “그냥 수궁을 하고 미안하다고.. (축약) 무조건 끝까지 좀 더 애겨요. 가서 풀어주려고 하고..”하며 용서 구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고 하였다. 통제적 유형은 대부분의 방식을 드문 빈도로 나타냈지만, 여성의 경우 ‘폭발하기’의 방식을 전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예시는 사례9의 남녀 참여자들이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나타내 준 것이다.

저는 조금 물건을 좀 집어던진다가,  
아니면 진짜 좀 물건을 좀 손으로 막 때려  
부순다던가 살짝 그런게 있어 가지고.. (남)

저는 소리 많이 지르고 욱도 해요. 저는  
오빠를 또 가끔씩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진짜 막 뺨쳐가지고 힘들어서 더 막. 그리고  
저 울고 불고 진짜 난리 나고.. (여)

### 영역 3.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요인

영역 3에서 헌신의 변화는 ‘책임감과 헌신이 계속 유지됨’, ‘책임감이 조금씩 더 생김’, ‘책임감이 원래도 없었고, 있던 헌신도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의 변화는 ‘좋아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거나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유지되고 있음’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낮아짐’이 도출되었다. 관계유지요인에는 ‘고마움, 좋아함, 재미있음 등의 긍정요인’과 ‘미안함, 헤어질 용기가 없음, 외로움 등의 부정요인’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차이를 보면 상황적 유형은 갈등 및 폭력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빈도로 헌신이 유지되었고, 통제적 유형은 헌신이 유지된 것과 낮아진 것이 모두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으나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만족감의 변화는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으나, 통제적 유형은 만족감이 낮아진 것 또한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관계유지요인은 유형을 막론하고 모두 긍정요인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지만, 통제적 유형은 부정요인이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헌신의 변화.** 헌신의 변화는 참여자들이 교제를 지속하면서 여러 갈등과 폭력의 문제가 있었던 시간을 지나면서도 상대에게 오롯



표 5.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 요인 결과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빈도			
			상황적 유형		통제적 유형	
			남	여	남	여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 요인	헌신의 변화	책임감과 헌신이 계속 유지됨	일반적(5)		전형적(5)	
		책임감이 조금씩 더 생김	-		드문(2)	
		책임감이 원래도 없었고, 있던 헌신도 낮아짐	드문(2)		전형적(7)	
		책임감이 원래도 없었고, 있던 헌신도 낮아짐	-	드문(2)	드문(4)	전형적(6)
	만족감의 변화	좋아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거나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유지되고 있음	일반적(6)		일반적(8)	
		좋아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거나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유지되고 있음	일반적(6)	전형적(3)	일반적(8)	드문(2)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낮아짐	변동적(3)		전형적(7)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포기를 하게 되면서 낮아짐	-	전형적(3)	-	전형적(7)
	관계유지 요인	고마움, 좋아함, 재미있음 등의 긍정요인	일반적(6)		일반적(9)	
		고마움, 좋아함, 재미있음 등의 긍정요인	전형적(4)	일반적(6)	전형적(7)	전형적(7)
미안함, 헤어질 용기가 없음, 외로움 등의 부정요인		-		전형적(7)		
미안함, 헤어질 용기가 없음, 외로움 등의 부정요인		-	변동적(4)		전형적(5)	

이 집중하고,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의의 변화를 나타내 준 것이다. 상황적 유형에서는 남녀 모두 일반적 및 전형적 빈도로 헌신의 유지를 보였던 반면, 통제적 유형에서는 남성의 경우 전형적 빈도로 헌신이 유지되었고, 여성은 전형적 빈도로 헌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 13의 여성은 “아직 저도 어리기 때문에 계속 사귀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책임감과 헌신이 낮아졌음을 나타냈다.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으로 ‘여성지배 여성우세’의 세부 유형에서 남성은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0의 남성은 “헌신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부터 그랬어요. 저는 뭔가 \*\*가 힘든 것보다 제가 힘들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라고 말하며 책임감과 헌신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지배 남성우세’의 세부 유형에서 여성이 다양한 범주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점점 더 생기는 결과를 나타냈다. 아래 예시로 제시한 사례 13의 여성은 연인의 통제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 힘들지만 적응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헌신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헌신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미래를.. 아, 이게 오빠가 항상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좀 마음이

쉽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빠는 그런 건 안 보여서 거기에서 더 오빠한테 신뢰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족감의 변화.** 만족감의 변화에서 남성은 유형을 불문하고 만족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상황적 유형의 경우 만족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아진 경우가 사례별로 반반씩 나타나 남성의 만족감 변화와는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상황적 유형의 사례14 남성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도) 저희는 서로 장난 잘 치고, 받아 주는 게 잘 맞고 재미있고 그래서 만족감은 높아요.”라고 하였고, 사례14 여성 또한 “사실 요즘 들어 더 많이 다투긴 했는데 만족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한데..(웃음)”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만족감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상황적 유형의 사례8 여성은 “남친의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거에서도 실망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낮아진 만족감의 변화를 나타냈다.

상황적 유형과 달리 통제적 유형에서 남녀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만족감이 유지되었던 반면 여성은 전형적 빈도로 만족감이 낮아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제적 유형의 사례15 남성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맞춰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제가 더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해요.”라고 말하며 만족감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통제적 유형의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바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이면서 만족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예시로 제시한 사례4의 여

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에 대한 기대와 좋아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만족감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기대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계속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만족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관계유지 요인.** 관계유지 요인은 참여자들이 갈등 및 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를 지속하는 원인을 나타내 준 것이다. 참여자들은 유형을 불문하고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고마움, 좋아함, 재미있음’ 등을 일반적 빈도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현재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황적 유형의 사례3 여성은 “제가 못되게 했는데도 재는 다른 사람한테 제 칭찬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고..”라고 말하며 고마움이 현재 관계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통제적 유형에서는 ‘미안함’, ‘헤어질 용기 없음’, ‘외로움’ 등의 부정요인 또한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요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전형적 빈도를 나타냈다. 아래 예시로 제시한 사례11의 여성은 현재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통제적 유형의 여성은 헤어지고 싶으나 시기를 정하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는 것, 외로움 및 공허함 등의 심리적 취약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준비하는데 있던 거 없애지 말고 없던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오히려 감정이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니 지금 하는 것도 집중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뭔가 지금 헤어지면 한두달이 갈 것 같아요. 이별의 감정이 지금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놓고 있어요.

## 논 의

본 연구는 커플의 데이트폭력 유형과 이에 관여하는 관계 역동을 탐구해 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5쌍의 커플을 인터뷰하였고, 그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영역과 13개의 상위 범주, 30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영역 1에서는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 폭력 유형 및 경험수준으로 역동의 방향은 '양방향 폭력'을, 폭력 유형에는 상위 범주로 '상황적 유형'과 '통제적 유형'을 도출하였다. 영역 2에서 '주요 갈등 주제 및 고유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으로 주요 갈등 주제의 상위 범주로 '이성 및 연관문제'와 '간섭 및 성격 문제'를 도출하였다. 고유한 인식의 상위 범주로 '성별 고정관념'과 '폭력허용신념'이, 폭력에 대한 심리 역동의 상위 범주로 '귀인 양식', '주요 감정', '대처방식'을 도출하였다. 영역 3에서 '헌신 및 만족감의 변화와 관계유지 요인'으로 상위 범주에 '헌신의 변화', '만족감의 변화', '관계유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 주제로 설정한 질문에 맞추어 논의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 및 폭력 유형, 폭력의 범주와 수준에서 앞선 연구들을 확장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가해와 피해가 이뤄지는 역동의 방향은 본 연구 결과 양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 소개한 Straus(2004, 2008, 2011)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는 이성 교제를 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행연구에 소개한 공격적 피해자(서경현, 안귀여루, 2007; 서경현, 2008)라는 개념에서와 같이 피해자 또한 가해 행위를 할 수도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두 사람이 이별로 관계를 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가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누군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해 관계가 중단될 때 비로소 가해와 피해를 가름할 수 있고, 그 전의 교제 관계 안에서 이를 가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방향의 복잡한 역동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심각한 수위의 폭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귀결될 때에만 데이트폭력을 문제로 지적할 뿐, 수위가 약한 범주의 폭력들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가해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또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피해 경험수준이 낮지 않아 남성 또한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LaRoche, 2008)과,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시작

하거나 훨씬 더 높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Archer, 2002; Anderson et al., 2011, Chen & Chan, 2019; Kamimura et al., 2016; Melton & Belknap, 2003), 더 많이 더 다양한 범주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홍태경, 2018)을 일부 지지한다. 예를 들어, 통제적 유형에서 여성이 먼저 지배를 시도하는 세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여성이 먼저 관계 역동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교제 관계 안에서 여성 또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Anderson et al., 2011, Chen & Chan, 2019; Kamimura et al., 2016)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여성 또한 남성만큼이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만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주된 해석의 관점으로 취해 왔던 젠더폭력의 관점을 관계적 힘의 불균형 차원에서 함께 고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행동 통제’ 유무에 따라 상황적 유형과 통제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제시한 Johnson(1995, 2006)의 유형론과 이를 반박한 Gulliver와 Fanslow(2015)의 견해를 상호 보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Gulliver와 Fanslow(2015)는 유형론을 비판하며 폭력의 수위가 낮은 그룹과 평균 및 수위가 높은 수준의 그룹을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다면, ‘지배와 통제’의 목적이 관여된 유형일 경우 훨씬 더 다양한 범주의 수위 높은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통제적’ 폭력 유형의 그룹

은 ‘상황적’ 폭력 유형의 그룹보다 힘과 통제를 목적으로 정신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 등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적 유형’에서 주로 정신적 범주가 주요한 범주로 나타난 반면 그 수준이 통제적 유형에 비해 높지 않았고, ‘통제적 유형’에서 정신적, 통제적, 신체적 등의 다양한 폭력의 범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상황적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지배와 통제’의 동기가 포함될 경우 그 범주와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진숙, 문화진, 2021; 허수진 외, 2019; Aizpurua et al., 2021; Fawson, 2015)을 지지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소개한 Kelly와 Johnson(2008)의 연구를 보면 상황적 유형의 그룹 또한 상당히 위험하고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이는 확인해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황적 유형의 커플은 여러 다른 범주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데이트폭력 커플의 유형은 상황적 맥락에 의한 것이 많다는 연구 결과(Simpson et al., 2007)는 본 연구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상황적 폭력 유형이 여섯 커플, 통제적 폭력 유형이 아홉 커플로 후자의 유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초기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이성 커플에게 지배와 통제의 요소가 주요하게 관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을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음을 소개했는데(김유정, 서경현, 2009; 유고은, 이창배, 2021; 홍세은, 정지수, 2019), 과거 불안정한 가정 내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이는 개인의 심리 내적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했을 수 있고(권혜림, 2021; Goodboy et al., 2017), 성인 초기 새로운 애착 관계에서 지배와 통제의 욕구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통제적 커플 유형은 또 다시 세 가지 세부 유형인 ‘여성이 지배를 시도하고 여성이 우세한 유형과 ‘여성이 지배를 시도하지만 남성이 우세한 유형,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이 우세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또한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중심의 폭력은 가부장적 신념이 주요하게 관여됨으로 가해는 주로 남성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들(박경은, 유영권, 2017; Graham-Kevan & Archer, 2005; Johnson, 2006)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성인 초기 20대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서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배와 질투’의 문제가 여성이 지배를 시도하는 관계 역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반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김래은 등, 2020; 조옥형, 김춘경, 2021)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대·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Tang & Lai, 2008)과 가부장적 가치관이 기사도적 가치관으로 전향된 남성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Archer, 2000)가 여성의 ‘지배와 통제’를 부상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이 ‘지배와 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통해 볼 때, 선행연구에 제시한 O’Leary 등(2007)의 주장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위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 서로에

대한 지배와 질투를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 유형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서로에 대한 통제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더 많은 범주와 더 높은 수준의 데이트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관여된 경우 더 위험한 수준의 다양한 범주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여성이 지배를 시도하는 경우에 남성이 통제적,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높게 경험하지만, 특히 정신적 폭력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ohnson(1995, 2006)의 유형 분류에서 간과했던 ‘여성이 지배를 시도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의 관계 역동을 경험적으로 드러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상황적 유형의 경우 선행연구에 제시한 Stith 등(2011)의 견해에서와 같이 두 사람의 갈등 관리 방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고, 통제와 지배의 목적이 관여된 폭력 유형의 경우 서로에 대한 지배와 질투의 문제를 비롯해 심리적 통제의 욕구와 동기를 조금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커플의 가해와 피해에 관여하는 주요한 갈등 주제 및 신념 등 개인 내적 요인과 폭력 시 촉발된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의 주요한 갈등 주제는 ‘이성 문제가 전형적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커플의 관계적 요소로 서로에 대한 질투와 관계 갈등이 주요하게 관여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Goussinsky et al., 2017; Kamimura et al., 2016; Lasley & Durtschi, 2017; Paat & Markham, 2016)을 지지한다. 연락 및 소통의 문제 또한 두 유형에서 전형적, 일반적 빈도로 나타나 적지 않은 갈등의 주제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제적 유형'에서 상대 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 서로에 대한 성격 및 예민함의 문제 또한 전형적 이상의 빈도로 갈등의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통제적 유형은 수위 높은 폭력이 행사되는 역동이 있음을 나타냈는데(Aizpurua et al., 2021), 본 연구 결과 통제적 유형은 상대에 대한 질투의 문제를 넘어 지배를 통해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어(O'Leary et al., 2007) 더욱 많은 범주의 수위 높은 폭력이 행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성별고정관념'과 '폭력허용신념'에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별을 막론하고 성별고정관념을 비교적 적게 갖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이 더욱 드물게 해당 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성별고정관념이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에게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연구들(박경은, 유영권, 2017; Dobash & Dobash, 2004; Graham-Kevan & Archer, 2005)을 지지할 수 없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이 정형화된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데이트폭력 현상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관계 역동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력허용신념에서 남성의 경우 전형적 빈도로 '이 정도 폭력은 괜찮고 좋아하면 맞춰주거나 참아야 한다.'는 폭력허용신념을 갖고 있었고, 여성은 통제적 유형의 두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신념을 거의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 및 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성에게는 관계 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폭력 이외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 연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가해 또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논의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남성의 높은 폭력 허용도는 연인으로부터 야기된 폭력 피해의 경험을 묵인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실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힘의 차이로 인해, 힘없고 약한 여성의 피해는 더욱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힘 있고 강한 남성의 피해는 쉽게 간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실제 남성의 폭력 피해 경험이 적지 않음을 드러낸 연구 결과들(Ehrensaft et al., 2004; LaRoche, 200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남성들은 피해 여성들에 비해 이를 큰 문제로 가시화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여성의 가해는 더욱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에 기여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다양한 범주의 수위 높은 폭력을 행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가해를 드러내 준 것

일 뿐 아니라 여성의 가해를 쉽게 묵인하는 남성의 높은 폭력 허용도를 보여준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남성은 높은 폭력허용도로 인해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의 가해 행위에 대한 위협 요소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주요한 요소로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김수민, 이창배, 2021; 문지혜, 정혜정, 2015; 이미호, 2020; 홍세은, 한민경, 2021; 홍영오, 2017; Stith et al., 2004)과 맥을 같이 한다.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촉발된 주된 심리적 반응에 '귀인 양식', '주요 감정', '대처방식'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귀인 양식'으로 참여자들은 유형별, 성별 차이를 막론하고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대부분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및 외적 귀인 하는 경향에서 편차가 크지 않아 큰 해석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통제적 유형의 경우 연인에게 문제의 원인을 귀결시키는 외적 귀인의 경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각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통제와 지배'의 동기가 관여된 커플의 경우 현재의 갈등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촉발된 개인 심리 내적인 역동이 깊게 관여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 소개한 바와 같이 생애 초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질투를 느낄 수 있고(Goodboy et al., 2017),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의 영향(Kauffman-Parks et al., 2019)으로 인해 현재의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깊이 다루어 나

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주요 감정 및 대처방식에는 유형 및 성별의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상황적 유형에서 여성의 경우 주로 '화/짜증'의 정서를 일반적 빈도로, 남성의 경우 주로 '답답함', '지침', '싫음'의 정서를 일반적 빈도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사람의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새로운 관계 역동에 관여하여 현재 관계 만족에 변화를 가져왔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화/짜증의 동적 정서를 억압 및 회피의 방식으로 대처해 온 경우 관계 만족도가 떨어졌을 수 있고, 자신이 적극적인 설득 및 대화의 시도를 하거나 연인이 달래어주는 시도 등이 있었던 경우 관계 만족도는 유지되었을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형적으로 나타난 대처방식의 성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두 사람 모두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 및 촉발된 정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상황적 맥락을 살핀 의사소통 및 관계기술을 훈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Giordano et al., 2020; Stith et al., 2011).

한편, 통제적 유형은 더욱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가운데 남성은 '화/짜증'을 전형적 빈도로, 여성은 드문 빈도이지만 '화/짜증', '서러움', '슬픔', '무서움', '답답함', '싫음' 등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에 관여하는 지배와 질투, 분노조절의 문제, 관계 스트레스 등(Goussinsky et al., 2017; Kamimura et al., 2016; Lasley & Durtschi, 2017; Paat & Markham, 2016)이 두 사람의 관계 역동 속에 보다 세밀한 심리 역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커플은 전형적으로 취한 대처방식이 거의 없었으나, 여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정 정서를 잘 해소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결과 폭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들은 여성의 관계 만족을 전형적으로 떨어뜨린 결과로 귀결됐을 수 있다. 또한, '통제적 유형'의 커플은 남성의 경우 화/짜증의 동적 정서를 주로 느끼고, 여성은 다양한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끼면서도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개입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헌신과 관계 만족 및 관계유지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황적 유형의 남성은 전형적 이상으로 헌신과 관계 만족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관계 만족도가 유지되거나 떨어진 빈도가 모두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유형에서 남성은 전형적 빈도 이상으로 헌신과 만족감이 유지된 반면, 여성은 전형적 빈도로 헌신과 만족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갈등과 폭력이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만족감이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관계 만족이 폭력 행동에 관여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Stith 등(2004)의 견해를 지지한다. 특히 통제적 유형의 경우 여성은 대부분 전형적 빈도로 만족감이 낮아졌는데, 이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고, 이는 또다시 부정적인 복합 감정을 야기하여 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계유지 요인에서 대부분 긍정요인

을 전형적 빈도로 나타냈으나 통제유형의 여성은 미안함, 외로움, 용기없음 등의 부정요인 또한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가감정이 현재의 갈등을 더욱 심화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들에서 탐구하지 못한 보다 세밀한 경험적 자료들을 도출한 것이므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남성이 높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커플을 참여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에서 수위 높은 폭력이 구사된 경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하는 커플을 참여자로 독려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해당 문제를 극복한 커플을 참여자로 모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커플로 성별 편향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데이트폭력을 해석해 왔던 젠더 불균형적인 관점을 확인해 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고, 향후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을 고려한 연구 참여자 선정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와 피해를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상대만이 가해를 하거나 한쪽 상대만 피해를 당하는 관계의 형태를 비교해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데이트 중에 있는 커플이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갈등 및 폭력 경험을 다소 낮게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이별한 커플의 사례를 통하여 과거 연인이었던 이들의 경험을 함께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앞서 ‘남성지배 남성우세’ 유형에서 여성은 통제를 비롯해 다양한 범주의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헌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세부 유형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추후 더 탐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구혜영 (2017). 대학생 데이트폭력 허용성 영향요인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 37-68.
- 권혜림 (2021). 미혼 성인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정보연구*, 7(1), 29-43.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 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53-239.
- 김래은, 구상미, 최선미 (2020).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21(7), 244-254.
- 김상훈 (2023.04.05.). 이별 통보에 격분. 동거녀 살해 30대 검찰 송치. *새전북신문*.  
<https://www.sjbnews.com/news/news.php?number=776645>
- 김수민, 이창배 (2021).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경찰학회보*, 23(1), 195-226.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 37(8), 73-90.
- 김진숙, 문화진 (2021). 성인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1.
-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653.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미소, 이지연 (2021). 유기불안이 심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 민감성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지*, 21(4), 248-261.
- 백옥현 (2010). 고등학교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경험과 데이트 관계의 지각. *청소년학연구*, 17(1), 1-32.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21-39.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서운주, 박선태, 원유나 (2020).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5), 951-962.
- 신소라, 김연수 (2016).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4(2), 5-32.
- 신혜섭,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 299-323.
- 안은별, 임수진 (2019). 성인 애착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5(4), 55-68.
- 이수진 (2023.06.30). *교제폭력 끝내려면... “반복 신고는 가해자 처벌 원하는 것으로 봐야”*.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945>
- 여성가족부 (2022). *여성폭력통계*.  
[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BHfki9u872956bn68r6Qb5&srch\\_menu\\_nix=3tt2mJYv&cont\\_idx=308](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BHfki9u872956bn68r6Qb5&srch_menu_nix=3tt2mJYv&cont_idx=308)
- 엄건웅, 구상미, 김래은 (2020).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9), 164-172.
- 오선영, 김영희 (2007).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 데이트관계 만족도, 자아 존중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2), 1-27.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유고은, 이창배 (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경호경비학회*, 66, 291-318.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미호 (202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예측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3), 35-47.
- 이수정 (2020).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이승우, 남재성 (2018).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요인 검증\_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53-72.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오경자 (2007).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33-450.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장미혜, 김효정, 박상민, 유경희, 이다은, 정다은, 정연주, 정지연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조옥형, 김춘경 (2021).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인 애착, 의도적 반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51-976.
- 최진, 최가연, 채정희, 송연주 (2019). 성역할 태도, 관계중독,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 성인 미혼 남녀를

-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795-814.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병찬 (2023.05.28). '데이트폭력' 신고 연인 '보복살해'한 30대 남성,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뉴스 1.  
<https://www.news1.kr/articles/5104602>
- 허수진, 김보경, 김범준 (2019). 성인의 불안에 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0(3), 195-214.
- 홍세은, 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세은, 한민경 (2021).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형사정책연구*, 32(4), 1-32.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홍태경 (2018).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491-520.
- Aizpurua, E., Copp, J., Ricarte, J. J., & Vázquez, D. (2021). Controlling behavior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Spai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partner, and relationship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231-254.
- Amar, A., & Gennaro, S. (2005). Dating violence in college women: Associated physical injury, healthcare usage, and mental health symptoms. *Nursing Research*, 54(4), 235-242.
- Anderson, J. R., Chen, W., Johnson, M. D., Lyon, S. E., Lee, C. S., Zheng, F., & Peterson, F. R. (2011).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mainland China: An exploratory study. *Violence and Victims*, 26(5), 631-647.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 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rcher, J. (2002). Sex differences in physically aggressive acts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4), 313-351.
- Archer, J. (2006).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physical aggression between partners: A soci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33-153.
- Bell, K., & Naugle, A. (2008).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oving towards a contex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096-1107.
- Chen, M., & Chan, K. (2019).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hina: Gender Symmetry, Mutuality,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3-14), 1-23.

- Deutch FM (2007). Undoing gender. *Gender & Society*, 21, 106-127.
- Dixon, L., & Graham-Kevan, N. (2011).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etiolog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7), 1145-1155.
- Dobash, R. P., & Dobash, R. E. (2004). Women's violence to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Working on a puzzl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3), 324-349.
- Dutton, M. A., Green, B., Kaltman, S. I., Roesch, D. M., Zeffiro, T. A., & Krause, E. D.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PTSD, and adverse health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955-968
- Ehrensaft, M., Moffitt, T., & Caspi, A. (2004). Clinically abusive relationships in an unselected birth cohort: Men's and women's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2), 258-270.
- Fawson, P. R. (2015). Controlling behaviors as a predictor of partner violence among heterosexual female and male adolescents. *Partner Abuse*, 6(2), 217-229.
- Giordano, P. C., Copp, J. E., Longmore, M. A., & Manning, W. D. (2016). Anger, contr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1), 1-13.
- Giordano, P. C., Copp, J. E., Manning, W. D., & Longmore, M. A. (2020b). When worlds collide: Linking involvement with friend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Social Forces*, 98(3), 1196-1222.
- Giordano, P. C., Grace, M. M., Manning, W. D., & Longmore, M. A. (2020). Gender, couple-level dynamic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Working Paper Series, Center for Family and Demographic Research*,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Goodboy, A. K., Dainton, M., Borzea, D., & Goldman, Z. W. (2017). Attachment and negative relational maintenance: Dyadic comparisons using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1-19.
- Goussinsky, R., Michael, K., & Yassour-Borochowitz, D. (2017). Relationship Dynamic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Israeli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Proble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23-24), 1-22.
- Graham-Kevan, N., & Archer, J. (2005). Investigating three explanations of women's relationship aggress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3), 270-277.
- Gulliver, P., & Fanslow, J. (2015). The Johnson typologi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investigation of their representation in a general population of New Zealand women. *Journal of Child Custody*, 12(1), 25-26.
- Halpern-Meekin, S., Manning, W. D., Giordano, P. C., & Longmore, M. A. (2013). Relationship churning in emerging adulthood: On/off relationships and sex with an ex.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8, 166-188
- Hammock, G., Richardson, D., Lamm, K., Taylor, E., & Verlaque, L. (2017). The effect of gender of perpetrator and victim on

-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intimate 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3), 357-365.
- Hill, C. E., Thompson, B. J., &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Thompson, B. J., Hess, S.A., Know, S., Williams, E. N.,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sieh, H., Feng, J., & Shu, B. (2009). The experiences of Taiwanese wom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7(3), 153-160.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2), 238-294.
- Johnson, M.P. (2006). Conflict and control: Gender symmetry and asymmetry i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 1003-1018.
- Kamimura, A., Nourian, M., Assasnik, N., & Franchek-Roa, K.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China. *Injury Prevention*, 22(5), 352-7.
- Kauffman-Parks, A. M., Longmore, M.A., Giordano, P. C., & Manning, W. M. (2019). Inducing jealous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36(9), 2802-2823.
- Kelly, J., & Johnson, M. (2008). Differentiation among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update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Family Court Review*, 46(3), 476-499.
- LaRoche, D. (2008). Context and consequence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en and women in Canada in 2004. Institut la statistique du Quebec.
- Lasley, C., & Durtschi, J. (2017). The Roles of Dominance, Jealousy, and Violent Socialization in Chinese Dating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8), 1209-1234.
- Melton, H., & Belknap, J. (2003). He hits, she hits - Assessing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officially reported intimate partner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3), 328-348.
- Ministry of Justice. (2015). *New Zealand Crime and Safety Survey*. Ministry of Justice.
- Minto, K., Masser, B., & Louis, W. (2022). Lay understandings of the structur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behavioral clustering patter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 13-14.
- Munro, O. E., & Sellbom, M. (2022). Evalu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in the context of an intimate partner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me. *Psychology, Crime & Law*, 28(5), 489-510.
- Murray, C. E., & Graybeal, J. (2007). Methodological review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revention researc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0), 1250-1269.
- O'Leary, K. (1999). Developmental and affective issues in assessing and treating partner aggression. *Clinical Psychology*, 72, 202-217.
- O'Leary, K. D., Smith Slep, A., & O'Leary, S. G.

- (2007). Multivariate models of men's and women's 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5), 752-762.
- Paat, Y. F., & Markham, C. (2016). The Roles of Family Factors and Relationship Dynamics o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College Men and Wome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 81-114.
- Rusbult, C. E., & Van Lange, P. A. M. (2003). Interdependence, interaction, and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351-375.
- Shen, A. C. T. (2014). Dating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Taiwanese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Cultural Belief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4), 635-658.
- Simpson, L. E., Doss, B. D., Wheeler, J., & Christensen, A. (2007). Relationship violence among couples seeking therapy: Common couple violence or battering?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 270-283.
- Slotter, E. B., Finkel, E. J., DeWall, C. N., Pond, R. S., Jr., Lambert, N. M., Bodenhausen, G. V., & Fincham, F. D. (2012). Putting the brakes on aggression toward a romantic partner: The inhibitory influence of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291-305.
- Spencer, C. M., Stith, S. M., & Cafferky, B. (2022). What puts individuals at risk for phys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metaanalysis examining risk markers for men and women. *Trauma, Violence, & Abuse, 23*(1), 36-51.
-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University Press.
- Stith, S., McCollum, E., & Rosen, K. (2011). *Couples therapy for domestic violence: Finding safe solutions* (1st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ith, S., Smith, D., Penn, C., Ward, D., & Tritt, D. (2004). Intimate partner physical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risk facto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1), 65-9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2008). Dominance and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 Straus, M. A. (2011). Gender symmetry and mutuality in perpetration of clinical-level partner violence: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4), 279-288.
- Su, L. H. (2017). *China's new domestic violence law: keeping victims out of harm's way? Working paper*. Yale Law School, Paul Tsai China Center.
- Tang., & Lai. (2008).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on the prevalence and risk markers

of male-on-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ontemporary China, 1987-2006.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1), 10-28.

Tjaden, P., Thoennes, Nanc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Full report of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U.S. Dep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논문 투고일 : 2023. 07. 26

1 차 심사일 : 2023. 08. 10

2 차 심사일 : 2023. 08. 29

게재 확정일 : 2023. 10. 11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Dynamics of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ult Couples according to the Types of Dynamics in Dating Violence

**Kyung Eun Park**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relationship dynamics of couple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couple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method. As a result, 3 domains, 13 categories, and 30 subcategories were derived. Domain 1 was about “the direction of the dynamics of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types of violence, and experience level,” and found that the dynamics of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re bidirectional, and that there are situational and controlling types of violence. For domain 2, we explored “major conflict themes, unique perceptions, and psychological dynamics of violence” and identified “other and communication issues” and “interference and personality issues” as major conflict themes, “gender stereotypes” and “violence permissive beliefs” as unique perceptions, and “attribution styles,” “major emotions,” and “coping styles” as psychological dynamics of violence. For domain 3, we looked into the ‘changes in commitment and satisfaction as well as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and presented changes in commitment and satisfaction, and found that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factors were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dating violence consists of mutual abuse and that it empirically revealed the detailed elements of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male and female. This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previous studies,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couple, Types of dynamics in dating violence, relationship dynamics, consensual qualitative study